

박 복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사군자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스타일리스트 전공

배 기 혜

# 사군자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박복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스타일리스트 전공  
배기혜

# 인 준 서

배기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 대학원

## 논 문 개 요

사군자(四君子)는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로 마음을 수양하며,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식물로 널리 다루어져 왔다. 이는 사군자가 단순한 그림의 소재가 아닌, 동양 고유(高裕)의 문화와 정신의 본질적 가치를 집약시킨 하나의 표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사군자(四君子)는 높은 기상과 품격을 지닌 매(梅), 난(蘭), 국(菊), 죽(竹)의 네 가지 식물을 말한다. 매(梅), 매화는 눈(雪)과 매서운 바람에도 꽃꽂하게 피어나므로 꽃 중에서 가장 고결하며, 난(蘭), 난초는 깊은 산중에서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린다. 국(菊), 국화는 늦가을의 추위와 서리를 이겨내며 굳은 의지와 절개를 지켜 가장 늦게까지 피어 있으며, 죽(竹), 대나무는 모든 식물이 잎을 떨어뜨린 추운 겨울에도 푸르고 싱싱한 잎을 간직하고 있어서 군자의 지조와 여자의 정조를 대표하는 식물 중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다.

사군자는 아름다운 선과 형태들을 특징으로 한다. 화려한 아름다움을 내재하고 있는 매화는 반직선, 부드러움이 선으로 녹아든 난은 곡선, 반복적인 가운데 소박함이 묻어나는 국화는 반곡선, 꽃꽂한 대나무는 직선으로 표현된다.

자연은 모든 예술의 근원이며, 예로부터 인간의 관심의 대상, 즉 모든 예술 분야의 조형적 창작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간은 자연에 대한 순수하고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출하고, 재료와 기법의 다양화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의 대상인 사군자를 몸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도록 하여 리듬감을 강조하는 바디페인팅으로 표현하

었다.

바디페인팅은 단순히 인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인체의 아름다움과 회화의 예술성을 접목하여 창조적인 미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일반적으로 화폭에 그리는 평면적인 회화와는 달리 바디 페인팅은 곡선과 면, 골격 등으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몸 위에 그림을 그리므로 입체에 따라 변하는 형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순간의 육체적 변화를 보여주는 행위예술과 동일시되기도 하고, 조명과 음악, 의상 또는 소도구와 함께 주제에 맞는 퍼포먼스를 자아내는 예술적 차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도 한다. 즉, 바디페인팅은 인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료와 방법을 이용하여, 회화적 예술성과 인간을 조화시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독창적인 예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군자의 아름다움과 본질적 정신을 바탕으로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자연의 선을 이용하여 조형적인 형태를 추론하였고 매, 난, 국, 죽의 형태에서 볼 수 있는 조형적인 요소가 몸의 근육과 결합하여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새로운 형식의 작업을 시도하였다. 각각의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 선택,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군자 고유의 미적가치가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창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범위 .....	2
II. 바디페인팅의 이론적 고찰 .....	3
1. 바디페인팅의 의의 .....	3
2. 바디페인팅의 기원과 역사 .....	6
3. 바디페인팅의 표현기법 .....	8
4. 바디페인팅의 재료와 도구 .....	16
5. 바디페인팅의 예술적 특징 .....	21
III. 사군자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	24
1. 사군자의 이론적 배경 .....	24
2. 사군자를 응용한 본인 작품분석 .....	30
IV. 결론 .....	48

참고문헌

ABSTRACT

## 그림 목 차

<그림 1> Face painting .....	4
<그림 2> Body painting .....	4
<그림 3> 타투(Tatto) .....	4
<그림 4> 피어싱(Piercing) .....	4
<그림 5> 헤나염색 .....	4
<그림 6> 이집트 Make-up .....	7
<그림 7> 그리스 Make-up .....	7
<그림 8, 9> 회화적 기법을 응용한 Body painting .....	9
<그림 10, 11> UV 발광 물감으로 채색한 Body painting .....	10
<그림 12, 13> 그래픽 기법을 응용한 Body painting .....	11
<그림 14, 15>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Body painting .....	12
<그림 16, 17> 오브제를 활용한 Body painting .....	13
<그림 18, 19>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기법 .....	14
<그림 20> 디지털 페인팅(digital painting) .....	15
<그림 21, 22> 인조 속눈썹을 이용한 Make-up .....	18
<그림 23, 24> 글리터(Glitters)를 이용한 Make-up .....	19
<그림 25> 인조보석을 이용한 Body painting .....	20
<그림 26> 작품 1 .....	33
<그림 27> 작품 2 .....	35
<그림 28, 29, 30, 31> 작품 3 .....	37
<그림 32> 작품 4 .....	39

<그림 33> 작품 5 .....	41
<그림 34, 35> 작품 6 .....	43
<그림 36> 작품 7 .....	45
<그림 37> 작품 8 .....	47

# I. 서 론

##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자연은 모든 예술분야에 조형적 창작 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인간은 자연에서 느낀 미적 체험을 통해 순수한 조형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자연의 모티브 중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는 사군자는 문인화와 수묵화의 대표적인 주제로 동양의 중심사상과 의미를 지니고 있고, 마음을 수양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매체로 널리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사군자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그리고 형태적 특징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여, 캔버스에 그리는 평면적인 그림과는 달리, 선과 면, 입체로 이루어진 신체에 생동감의 표현을 모티브로 하여 조형적 이미지에 맞는 소재와 화법들을 도입하고, 사군자의 조형미를 부각시켜 신체의 골격과 근육을 살려 아름다움을 표현 하고자 한다.

바디페인팅은 인간의 미적 본능의 가장 원초적인 표현인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조형예술로, 작가의 자발성과 독창성에 재료의 질감이 결합된 자유로운 표현이다. 다양한 연출로 변화를 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와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의 몸에 이미지화 또는 형상화시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군자의 미적가치는 물론, 인격수양의 매체로서 정신적 가치를 집약하고 있는 사군자를 몸의 굴곡과 피부의 질감을 이용하여 몸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도록 변화를 주고, 리듬감을 살려 새로운 이미지

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형식의 작업을 시도했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감상자와 정신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사군자 패턴을 응용한 바디페인팅을 연구한 것으로써, 바디아트의 개념을 파악하고 사군자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여 바디페인팅에 응용하였다.

기본적으로 바디아트와 바디페인팅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위해 바디아트에 관한 국내외의 문헌, 인터넷, 잡지 등 여러 자료와 연구 논총에 발표된 논문을 참고하였고, 사군자의 이론적 배경은 국내의 사군자 관련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시각자료로는 바디아트가 수록된 전문서적이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였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바디페인팅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써 바디페인팅의 의의, 기원과 역사, 표현기법, 재료와 도구, 예술적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 3장에서는 사군자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정리하였고, 사군자 패턴을 응용한 매, 난, 국, 죽의 형태에서 보이는 조형적인 요소가 몸의 근육과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형식의 본인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작품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하였다.

## Ⅱ. 바디페인팅의 이론적 고찰

### 1. 바디페인팅의 의의

바디페인팅은 신체를 매개로 하는 예술, 즉 바디아트에 속하며 인간의 내적 이미지 세계를 얼굴에서 신체로까지 넓은 미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바디페인팅은 미술사조 속에서 살펴보면 개념미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공간적인 예술의 새로운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인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방법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의식화된 행위이자 표현의 양식이고, 예술과 인간을 조화시킴으로써 새롭게 창조되는 독창적인 신체 종합 예술이 바로 바디페인팅인 것이다.

바디페인팅의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바디아트에 대해 서술하겠다. 바디아트를 사전적 의미로 정의하자면 바디아트는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미적 작품을 형성하는 인간의 창조 활동 또는 그 산물로 규정할 수 있다.

현대 바디아트는 얼굴과 몸에 채색하는 Face & Body Painting<그림 1, 2>, 물감을 피부에 새겨 넣어 장식하는 문신(tatto)<그림 3>, 신체 특정부위에 구멍을 뚫어 장식하는 피어싱(piercing)<그림 4>, 열대성 관목인 로소니아 이너미스(Lawsonia inermis L.)의 잎을 따서 말린 다음 가루로 만든 염색제 헤나(henna)를 피부 표피에 염색하는 헤나염색<그림 5>으로 구분된다.

바디아트는 조명과 음악, 의상 또는 소도구와 조화하여 주제에 맞는 표현을 위한 행동예술(behaviour art)을 포함하는 예술 관념적인 차원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행동예술은 개념예술<sup>1)</sup>에서 발전한 것으로, 육체의 운동 및 변화의 여러

조건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각 순간의 육체적 변화를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프로세스 아트(Process Art)<sup>2)</sup>와 마찬가지로, 관념을 생산하는 개념 미술의 필연적 진전으로 볼 수 있다.<sup>3)</sup>



<그림 1> Face painting    <그림 2> Body painting    <그림 3> 타투(Tatto)

(신단주 외 3/ 바디아트와 캐릭터메이크업 p77, 102/ 크라운출판사/ 2007)



<그림 4> 피어싱(Piercing)    <그림 5> 헤나염색

(한명숙 외 2/ The Body Art p40, 46/ 청구문화사/ 2006)

- 
- 1) 특정의 완성된 상태를 의도하지 아니하고 창작의 이념이나 과정을 중시하는 예술.
  - 2) 작품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완성된 결과보다 중요시하는 미술 경향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성행하였다.
  - 3)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바디페인팅에 관해 언급된 선행 논문들을 살펴보면 김재희<sup>4)</sup>는 인체라는 삼차원적이며 율동성이 있는 대상과 결합한 바디페인팅은 작가 자신의 감정이나 감각, 느낌, 혹은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각 언어라 하였고, 한명숙<sup>5)</sup>은 개념미술의 한 분류이며, 퍼포먼스 아트의 선구로서, 명칭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몸을 재료로 하는 미술형태라 하여 미술의 장르로 파악하고 있다. 김경숙<sup>6)</sup> 또한 신체 미술의 장르로 파악했다. 시각적인 화려함과 동적인 느낌을 신체에 표현하는 종합예술로, 미적의식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만이 아닌 전위적 예술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 천현노<sup>7)</sup>는, 바디페인팅은 물감이나 진흙, 그 외에도 신체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하여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그려 채색하기도 하고 의도된 목적에 따라 채색하는 신체장식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관련 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대체로 바디페인팅은 움직임과 함께 채색이라는 회화적 표현기법을 더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미술양식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디페인팅은 점차 패션의 형태로 확장돼 메이크업의 한 분야로도 그 영역을 점하고 있다. 바디페인팅은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환타지, 애니메이션(animation), 아트, 메이크업, 패션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기업의 마케팅으로 응용하기에 이르렀다.

---

4) 김재희, 바디 페인팅에 나타난 기호성과 상징성에 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2002

5) 한명숙,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 대학원, 2005

6) 김경숙, 신체미술에 나타난 분장(Make-Up)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과학대학원, 2004

7) 천현노, 바디아트(Body Art)에 나타난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 연구, 전남대 대학원, 2006

## 2. 바디페인팅의 기원과 역사

인간은 우리가 원시라고 부르는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능적·사회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에 장식을 하여 자신을 표현해 왔다.

인류가 언제부터 자신의 몸에 색을 칠함으로써 창조적 충동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모든 대륙의 사람들이 선사시대부터 독자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 것은 벽화와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벽화나 선사시대 유물에서 사용된 색상은 빨강, 노랑, 검정, 백색 등 비교적 다양했으며 염료로는 흙에서 나온 광물이나 황토를 주로 사용하였다.

신체를 통한 자아표현이 외모를 바꾸기 위한 것이었든, 다른 부족과의 구별을 위해서였든, 또는 종교적 의식으로 사용되었든, 시대가 지날수록 더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예술적 표현물으로써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산재되어 남아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구별 없이 미의 추구를 위해 붉은 색의 식물성 염료인 헤나(henna)를 손, 발에 바르고, 검정색 코올(kohl)<sup>8)</sup>과 녹색이나 청색 등의 착색료를 눈 주위에 칠했다.<그림 6> 그리스 여성들은 백납분을 사용하여 피부를 희게 칠하고 볼과 입술은 붉게 칠하였다.<그림 7> 또한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풍습을 받아 들였으며, 다양한 향장료와 향수를 사용하였다. 단순한 얼굴 채색에서부터 시작된 신체표현 행위는 부족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등 더욱 진보적인 형태로 발달되었다. 고대 이집트의 여성들이나 아테네의 상류계급인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귀족 여인들 사이에서 신체표현행위가 성행하였고, 오늘날의 메이크업과 바디아트가 그 역할의 자리를 잡아가는 토대가 되었다.<sup>9)</sup>

---

8) 화장 먹 (안티몬 분말 ; 아랍 여인 등이 눈언저리를 검게 칠하는 데 씀)

바디페인팅의 기원은 여러 학설로 설명되는데, 적이나 맹수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보호설, 인간 본능의 아름다움의 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심미설(장식설), 계급이나 위엄, 신성함을 나타내는 수단, 타 부족과의 구분을 짓기 위한 수단이라는 신분 표시설, 주술적 행위(종교적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바디페인팅의 기원을 어느 한 가지 설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각 민족에 따라 바디페인팅의 목적과 동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디페인팅은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따라서 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6> 이집트 Make-up

<그림 7> 그리스 Make-up

(임미애 외 2/ 화장문화사 p27/ 신정/ 2009)

바디페인팅의 육체적 장식과 색의 표현은 고대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고대인들은 특히 사냥을 할 때 동물의 부속물로 장식하고 동물의 특징을 흉내 내는 춤을 추면서 더 많은 수호 영혼과 접촉하고자 노력하였다. 원시인들이 말이나 들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동물이 중요한 식량이었기 때문에 사냥을 성공하게 해달라는 주술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당

9) 한명숙 외 2인, THE BODY ART, 청구문화사, p10

당함과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다양한 형태를 혼합하여 추상적인 채색을 취하는 나체의 피부는 물질세계와 그 외의 모든 것을 연합하는 힘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매개체였다.

근대의 바디페인팅은 나이를 구별하는 표시와 부족을 구별하는 부족집단의 표시, 직업을 나타내는 지위의 표시 등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던 바디페인팅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술 장르의 하나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바디페인팅은 전통에 대한 본능적인 교체나 의식을 위한 언어가 아니다. 현대의 바디페인팅은 창작성과 세련된 작품성, 퍼포먼스를 통한 완벽한 시각적 환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바디페인팅은 순수예술의 장르로, 현대 산업사회에 부합하는 쇼와 무용 패션 쇼 등의 종합예술로서의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흥적인 작품 뿐 아니라 실험성이 강한 작품, 무대에서 조명, 음악, 퍼포먼스를 포함하여 표현하게 되는 무대예술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 3. 바디페인팅의 표현기법

바디페인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점, 선, 면 등의 적절한 사용과 형태, 색채, 질감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인체의 선을 엄두에 두면서 색과 음영을 조절하여 몸에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과 면으로 채색을 연결하고, 빛에 따라 음영을 조절하며, 몸의 곡선을 살리는 작업을 주의하여 표현해야 한다.

바디페인팅 작품을 위한 디자인을 할 때, 표현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외적인 미의 표현효과 외에도 대중과의 관계, 내적

감각표현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디페인팅의 효과적 표현을 위한 표현기법에 대해 언급된 선행 논문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회화, 블랙나이트, 그래픽, 에어브러시, 오브제,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등을 통한 여러 가지 표현기법에 대해 서술하겠다.

### 1) 회화적 기법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회화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파운데이션, 칼라 물감, 등의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한다. 자연물을 묘사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대상을 쉽게 이해시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회화적 표현기법의 소재로는 꽃, 동물, 바다, 우주, 태양, 인물, 등 다양하고, 실제와 상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도구로서 발전되어 무대예술에서도 흔히 사용되며, 축제나 파티 등 일상 속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림 8, 9> 회화적 기법을 응용한 Body painting

(신단주 외 3/ 바디아트와 캐릭터메이크업 p97, 171/ 크라운출판사/ 2007)

## 2) 블랙나이트 기법

수성물감 중에는 일반조명에서 보다 UV 라이트에서 더 발광하는 UV 발광 물감이 있다. 일반조명에서는 불투명하지만, UV 라이트에서는 투명한 불빛으로 나타난다. UV 발광 물감은 일반 수성 바디페인팅 물감과 겹쳐서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일반 물감으로 채색한 후에 UV 물감으로 그 위에 작업을 하면 된다. 이 표현기법은 UV 라이트의 와트(watt) 수에 따라 색상의 선명도가 좌우되고, 다른 광(光)보다는 UV 라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가 더 크다. 이런 특성을 살려서 페인팅 한 작품들은 무대공연이나 쇼 무대에서 많이 활용된다.

UV 발광 물감을 사용하여 페인팅 할 때는 물감의 성질과 효과를 사전에 확인하고, 무대 크기와 연기자의 활동범위, UV 라이트가 작품에 반응 할 수 있는 거리 등을 계산하여 작업에 임해야 한다.



<그림 10, 11> UV 발광 물감으로 채색한 Body painting

(신단주 외 3/ 바디아트와 캐릭터메이크업 p170/ 크라운출판사/ 2007)

### (3) 그래픽 기법

그래픽 표현기법은 표현하는 대상을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모티브를 주제로 하여 선의 나열, 흑과 백의 조화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로 찍는 행위 등의 표현을 가리키며, 색의 배열 또한 규칙적 혹은 불규칙적으로 사용하여 표현하고자하는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물감을 인체에 뿌리거나 물감 위를 구르는 행위 등의 즉흥적인 페인팅도 이 부분에 해당되며, 조금 더 적극적인 예술적 행위로 간주되어 행위예술의 수단으로도 이용된다.<sup>10)</sup>



<그림 12, 13> 그래픽 기법을 응용한 Body painting

(이현주/ 피카소의 회화를 응용한 바디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p26/ 한성대 예술대학원/ 2003)

10) 황지호, 19세기 상징주의 회화를 응용한 Body Painting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2008, p13

#### (4)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기법

에어브러시는 보통 공업용 도색 기계인 컴프레서(compressor, 공기압축기)로 물감을 일정한 압력으로 밀어내고, 건(gun)을 통해 원하는 부분에 물감을 분사하는 형식의 표현기법으로 매끄러운 표현에 적합하다. 바디페인팅 작업시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고 손으로 직접 칠하는 것보다 정교한 채색을 할 수 있어서 에어브러시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원하는 모양과 판을 몸에 대고 에어브러시를 이용하여 분사하면 스텐실(stencil)<sup>11)</sup>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림 14 .15>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Body painting

(신단주 외 3/ 바디아트와 캐릭터메이크업 p72, 75/ 크라운출판사/ 2007)

---

11) 글자나 무늬, 그림 따위의 모양을 오려낸 후, 그 구멍에 물감을 넣어 그림을 찍어 내는 기법.

### (5) 오브제(objet) 활용 기법

미술작품에 물감 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표현하거나 설치를 통한 작업을 하듯이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모든 재료들은 바디페인팅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주변의 조형물들을 이용해 인체와 하나의 작품으로 재구성되도록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오브제는 자연물과 인공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물에는 식물, 깃털, 머드, 석고, 스톤 등이 있으며, 인공소재에는 레이스와 비즈, 펄, 인조보석, 종이, 금속, 철사, 비닐 등이 있다.



<그림 16, 17> 오브제를 활용한 Body painting

(신단주 외 3/ 바디아트와 캐릭터메이크업 p79, 162/ 크라운출판사/ 2007)

(6)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project illumination) 기법

미국의 올랜도(Oranldo)를 근거지로 한 사진작가이자 멀티미디어 프로듀서인 매트 마르케즈(Matte Marquez)는 어떠한 페인팅이나 메이크업도 사용하지 않고, 누드 모델의 몸에 프로젝트에서 분사된 빛으로 작품을 만들어 촬영한다. 패턴과 디자인은 자연과 디지털의 세계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그 대상에 직접 색을 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작업들은 대상의 형태 위에 빛과 그림자를 얻거나 대상의 표면의 질감이나 색조를 바꾸는 식으로 표현된다. 사진을 찍는 동안 방은 검정색이고 방안에는 조명이 있어서 안 된다. 유일한 빛은 슬라이드 프로젝트(slide project)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모델의 뒤에 있는 벽도 검정색이어야 하고, 투사된 이미지와 그림자는 모델의 위에 위치해야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sup>12)</sup>



<그림 18, 19>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project illumination) 기법

(이현주/ 피카소의 회화를 응용한 바디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p29/ 한성대 예술대학원/ 2003)

12) 황지호, 19세기 상징주의 회화를 응용한 Body Painting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2008, p15

페인팅이나 메이크업을 직접 몸 위에 하지 않고 진행되는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기법과 비슷한 표현기법으로는 ‘디지털 페인팅(digital painting)’<그림 20>이 있는데 이것은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현재에는 바디페인팅의 표현기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페인팅은 컴퓨터 그래픽 도구 즉 포토샵(Photoshop)이나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같은 전문 그래픽도구를 사용해서 채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20> 디지털 페인팅(digital painting)

(CLIO 코스메틱 켈럼/ 인사아트센터/ 김준 작/ 2009)

이처럼 바디페인팅 분야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 독특한 연출을 할 수 있고, 다른 예술과 접목하거나, 혹은 그 자체만으로 작품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선, 면, 윤곽에 따라 작품화되는 바디페인팅은 전통기법과, 새롭고 다양한 기법의 사용으로 그 표현 방법이 무궁무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발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바디페인팅의 재료와 도구

현대의 메이크업 제품의 발달로 다양한 색상과 질감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인체에 무해한 물감의 발달로 바디페인팅의 표현기법도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 1) 물감

###### (1) 화르 아 로(Fard a l'éau)

대표적인 수성 바디페인팅 물감으로, 케익 타입이다. 물에 개어서 사용하며, 다양한 색상이 있고, 다양한 그라데이션 기법이 가능하다. 필이 섞여있는 제품의 색상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작업할 때의 발색이 약간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땀이나 물에 약하므로 계절과 환경에 따라 작업 후에 픽서 스프레이(Fixer spray)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좋다.

###### (2) 화르 크림(Fard crème)

크림타입으로 물을 섞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다. 붓과 스펀지를 이용하여 그라데이션 기법이 가능하며, 화르 아 로 보다 발색이 월등하여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표현에 적합하며, 광택이 난다.

(3) 리퀴드 바디 메이크업(Liquid body make-up)

액상 타입의 물감으로 바디 전체에 균일하게 색상을 도포할 때 용이하며, 스펀지를 이용해 메이크업한다. 원색, 피부색, 메탈릭한 색상 등이 있는데, 메탈릭한 피부표현에 주로 사용된다.

(4) UV 컬러 크림(UV body color cream)

UV광인 블랙나이트에서 발광하는 특수한 물감으로 다른 수성물감을 사용한 후에 덧바를 수 있다. 색과 색의 그라데이션은 쉽지 않지만, UV이외의 물감으로 그라데이션 한 후에 강조하여 사용하면 좋다. 일반조명에서는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UV라이트에서는 투명한 불빛으로 보인다.

(5) 아쿠아렐(Aquarelle)

액상 타입으로 타 재료와도 섞이며, 문양에 강조를 하거나, 섬세한 부분을 묘사할 때 용이하고, 물감의 양 조절로 자유로운 양감표현이 가능하다.

(6) 화르 그라(Fard gras)

유성물감으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색감이다. 묻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지속성이 낮으므로 작업 후 파우더를 발라서 번짐 없이 피부에 밀착시켜주는 것이 좋다. 유성제품이기 때문에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여 지워야 한다.

## 2) 재료

### (1) 인조 속눈썹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체를 접할 때 시선이 주로 얼굴부터 가게 되므로 작품의 이미지 전달에 있어서 안면 디자인은 매우 중요하다. 인조 속눈썹은 눈을 커 보이게 하고 얼굴 전체의 입체감을 돋보이게 한다. 작품에 맞는 연출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인조 속눈썹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21, 22> 인조 속눈썹을 이용한 Make-up

(오세희/ Style Make-up p303/ 성안당/ 2005)

### (2) 글리터(Glitters)

돌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글리터는 흔히 ‘반짝이’ 라고 불리고 바디페인팅 작업 시 하이라이트 부위에 입체감을 주려 할 때나 화려함을 강

조할 때 주로 사용된다. 적절하게 양 조절을 하여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하고, 사진 촬영 시 노출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글리터를 뿌린 부분이 먼지 처럼 보이게 되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그림 23, 24> 글리터(Glitters)를 이용한 Make-up

(오세희/ Style Make-up p302/ 성안당/ 2005)

### (3) 인조보석

흔히 ‘큐빅’이라고 불리고 육면체, 둥근형, 사각형 등 다양한 모양과 색으로 구성되어있다.

화려함을 주기 위해 얼굴의 악센트가 되는 미간, 눈 꼬리 부분에 많이 사용하며, 인체에 무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디자인에 따라 크기와 붙이는 위치를 신중하게 생각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게 적절히 사용한다. 작업 초반에 미리 붙여 놓지 말아야 하고, 붙인 후 바로 움직일 경우 떨어져서 효과를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한다.



<그림 25> 인조보석을 이용한 Body painting

(오세희/ Style Make-up p345/ 성안당/ 2005)

#### (4) 스펀지(Sponge)

스펀지는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천연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몸 전체에 염료 등을 펴 바르거나, 그라데이션을 할 때 용이하다. 세균번식을 막기 위해 사용 후 중성세제로 세척하여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말려서 보관한다.

#### (5) 브러시(Brush)

브러시는 크기에 따른 호수가 다양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데, 호수가 작은 붓은 정교하게 묘사하거나 가는 선으로 테두리를 연결할 때 사용되고, 호수가 큰 붓은 범위가 넓은 곳을 채색할 때 사용된다. 인조모도 사용이 가능하나, 딱딱해서 붓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천연모를 사용하는 것이 좋

다. 사용 후 중성세제로 세척하여 보관하는데, 붓 뿌리 부분에 안료가 깊숙이 끼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6) 픽서 스프레이(Fixer spray)

액상으로 되어있으며 분사용기에 담겨있다. 페인팅 후 필요한 부위에 뿌리면 얇은 막이 형성되어 페인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제품이다. 페인팅 후 번짐을 막아주고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용기를 충분히 흔든 후 원하는 부위에서 30cm정도 떨어져서 분사해야 한다.

### 5. 바디페인팅의 예술적 특징

#### 1) 상징적 특징

바디페인팅은 회화, 조각, 공예, 시간디자인과 달리 운동성이 있으며, 삼차원의 인체에 표현을 하는 것이므로 인체의 굴곡을 이용하여 창조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성(性)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 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바디페인팅은 인체에 표현을 하는 것이므로 몸의 움직임에 따라 예기치 못한 우연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시각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필요한데,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계기와, 평면적인 감각과 공간적인 감각, 그리고 시간적인 감각에 의한 계기가 바로 그것이다.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계기는 작품을 표현하는 각자의 인생관, 정서, 내적 현실 등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정해진

틀이 없으며,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적인 상징으로서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추상적인 요소들은 표현이라는 과정을 거쳤을 때 그 상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예술가가 주관적 언어를 표현하려고 할 때 그 언어는 일정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예술가 개인의 표현 방식과 연관된다. 평면과 공간적인 감각에 의한 표현의 계기는 시각언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범위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시간적 감각에 의한 계기는 의식의 흐름에 의한 유동적인 상태로써 추상적인 감각을 가져오게 하는 직관적 요인이며 경험에 의한 비가시적 표현이다.

## 2) 미술사적 특징

신체를 오랫동안 미술의 중심주제로 자리 잡게 한 미학적 특성은 서양미술의 역사 속에 예술이라는 범주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다다이즘<sup>13)</sup>의 정신적 의의는 허무주의에서 비롯된 무(無)의 정신이다. 다다의 발달로 모방의 대상이 되었던 신체가 적극적으로 미술이라는 영역 안에 합류하게 되었다. 더 이상 신체를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물질성이 강조되면서 재료의 본질 개념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된다. 신체를 이용한 살아있는 몸짓, 신체를 이용한 표현, 신체의 의도적 페인팅 등이 바디페인팅의 모체가 되고 있다.

1960년대 중반에 등장한 개념미술<sup>14)</sup>적인 경향 속에서 미술가들은, 미술은 미술가와 관람자의 정신 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미술관이라는 한정된

---

13) 제1차세계대전(1914~1918) 말엽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운동.

14) 미니멀 아트(minimal art) 이후에 대두한 현대미술의 경향.

공간과 미술계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면서 관람자로 하여금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정신적인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미술이 수집과 소유의 대상이 아닌, 미술에서의 의사소통에 의미를 두었다. 사회적, 환경적, 지적인 광범위한 관심들에 미술활동을 연관시키면서 다양한 작업양상을 전개하게 되었고, 바디페인팅도 그러한 형식 중 하나이다. 페인팅 된 신체적 개념의 표현, 또는 신체의 행동과 연관된 많은 표현들이 작가의 개념의 미술적 방법으로 관람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 Ⅲ. 사군자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 1. 사군자의 이론적 배경

사군자(四君子)란 동양회화상(東洋繪畫上)에서 매난국죽(梅蘭菊竹)을 말한다. 군자(君子)란 명칭은 본래 재질과 덕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덕(德)이란 미덕(美德), 덕풍(德風)<sup>15)</sup>, 지덕(志德) 등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로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sup>16)</sup>에 많이 유행하였던 말이다. 춘추전국시대에 맹산군(孟嘗君), 평원군(平原君), 춘신군(春申君), 신릉군(信陵君) 등 뜻이 높은 네 사람을 골라서 그들의 덕망을 높이 받들기 위하여 부른 이름이다. 그런데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에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된 것은, 수많은 식물들 중에서도 매화는 설한풍(雪寒風) 속에서 맑은 향기와 함께 봄을 제일 먼저 알리며 피고, 난초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홀로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고, 국화는 늦가을 찬 서리를 맞으면서 깨끗한 꽃을 피우고, 대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하는 등, 그 생태적 특성이 모두 고결한 군자의 인품을 닮았기 때문이었다.

예로부터 동양인들은 덕성과 지성을 겸비한 최고의 인격자를 가리켜 군자라 불렀다. 이러한 군자의 성품은 누구나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찬미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당시의 지적(知的) 엘리트였던 문인사대부들은 군자의 성품을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군

15) 군자나 위정자의 뛰어난 덕에 의한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함.

16) BC 8세기에서 BC 3세기에 이르는 중국 고대의 변혁시대.

자의 고결한 성품을 예찬했다.

사군자 그림은 바로 이러한 문인사대부들이 인격을 수양하고, 그 마음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써 그리기 시작하였다. 문인사대부들은 사군자를 사시사철 그리고 감상하면서 윤리적 규범을 함양하고 성정(性情)을 바르게 순화하고자 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을 나타내고자 하는 등, 사군자 그림을 자기계발과 자기표현의 긴요한 수단으로 애호(愛好)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사군자 그림은 지식층을 중심으로 갖추어야 할 예술적 교양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시문, 서예와 함께 일상 생활화되었으며, 이러한 풍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산되었다.

사군자는 일반적으로 매, 난, 국, 죽의 순서로 소개되는데,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에 맞추어 배열된 것이다. 그러나 기법의 습득단계는 전통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난초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나무, 매화, 국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 1) 매

어떤 꽃이고 아름답지 않은 꽃이 있을까마는 유독 매화의 아름다움을 동양인들이 더 높이 본 까닭은 백화(百花)가 없는 눈과 얼음 속에서 홀로 고고하게 피어나기 때문이다. 매화는 이른 봄에 추위를 이겨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이다. 눈 속에 꽃이 핀다고 하여 설중매(雪中梅)라고 부르기도 한다. 청정(淸淨)하고 무구(無垢)한 품격은 옛 부터 고사(高士)나 군자(君子)로 비유되어 시속(時俗)에 굴하지 않는 절개와 지조를 상징해 왔다.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운다 하여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 정신의 표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매화는 시나 그림의 소재로 많은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다.

문인화풍(文人畫風)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교상에 있어서 대부분 단색으로 비교적 색채를 사용하지 않고 묵의 조합(組合)을 위주로 하였다. 그리고 기교의 표현이 시의적(詩意的), 사의적(寫意的)이었으며, 순수한 회화 본질을 위주로 하는 화풍은 아니었고, 사실적 관찰을 위주로 하는 화풍이었다.

매화의 화법을 살펴보면 매화의 형태는 S자형, Z자형, C자형, V자형 등 매우 많은 형태가 있으며, 또 자태에 있어서도 성글거나, 번거롭거나, 늙었거나 하는 등 제각기 그 표현 방법이 다르다. 상설 중의 매화는 늙고 가냘픈 가지이며, 꽃이 적어야 한다. 매화는 잎이 없으며, 그 형태도 야매(夜梅), 월매(月梅), 설상매(雪霜梅) 등이 다르고, 그 체(體)는 뿌리, 줄기, 가지, 꽃꼭지 등으로 구분하며, 근은 매화의 늙음과 젊음에 따라 다르다. 화법을 살펴보면 뿌리의 체세(體勢)는 서로 얽혀야 하고, 간은 꺾어야 하며, 가지는 말쑥해야 하고, 줄기는 강건하여야 하며, 꽃은 기이(奇異)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5요(5要)라 하고, 이것이 매화를 그리는 데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매화는 끈기의 식물이기 때문에 화가는 먼저 의(意)를 세우고 그 자세가 엄숙하여야 하며, 또 정숙하여야 하고, 사화(思花, 꽃의 보이지 않는 조화성)가 마음속에 확립된 후에 이른바 비전(飛電)같이 낙필(落筆)하여 줄기부터 가지, 꽃잎, 꽃술 등을 차례로 그린다.<sup>17)</sup>

## 2) 난

난초(蘭)는 여름철(夏節)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다. 난초는 깊은 산중에서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난초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향으로 자신을 알리는 것처럼, 군자 또한 높은 인품으로 주

---

17) 최열, 사군자 감상법, 대원사, p40

위를 감화시켜야 한다는 사대부의 이상이 담겨있는 꽃이다. 난은 예로부터 깊은 산 속에서 홀로 피어있는 고고한 식물로, 그 향기는 특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난화에는 묵의 사용법이 매우 중요하며 묵은 대개 농담(濃淡) 두 색을 조합하여, 엷은 농(濃)하고, 화는 담(淡)하며, 꽃술은 농하고, 꽃대는 담해야 하나, 같은 잎이라도 정면으로 보이는 잎은 농해야 하고, 뒤로 보이는 잎은 담해야 한다. 난화는 다른 화법과 달라서 묵은 향기가 있고 정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물의 사용 역시 맑은 신선수라야 신선하고 윤기 있는 난초가 될 수 있다.

난화법은 화화법(花畵法)과는 조금 다르다. 매화, 국화, 연화(蓮花) 등은 꽃잎으로 되어 있지만 난화는 약간의 선으로 되어 있어 다른 꽃보다는 기개가 있어야 하며, 꽃은 반드시 꽃대가 있어야 하고, 꽃대는 잎 속에서 나오며 꽃은 잎 중간에서 피어야 하고, 꽃은 활짝 핀 것, 반쯤 핀 것, 꽃망울 등이 각각 구별이 있어야 한다. 또한 대개 그 꽃잎은 다섯 개다.

### 3) 국

국화는 늦은 가을에 첫추위와 서리를 무릅쓰고 늦게까지 피는 꽃이다. 꽃들이 다투어 피는 봄이나 여름에 피지 않고 날씨가 차가워진 가을에 피는 국화를 선조들은 고고한 기품과 절개를 지키는 꽃이라고 여겼다. 국화를 일컬어 '오상고절(傲霜孤節)<sup>18)</sup>'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서리 내린 날에도 꽃꽂이 절개를 지키는 향기로운 꽃이라는 뜻이다.

국화 역시 매화와 같이 선(善)의 표현이고, 난이나 죽은 묵의 묘미가 있는

---

18)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라는 뜻으로, '국화(菊花)'를 이르는 말.

데 비해 국은 기품에 묘미가 있다. 국화에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으며, 국화의 색채에는 화, 백, 자, 홍, 흑 등이 있다.

국화는 그 전체의 구성이 화(花),엽(葉),체(體),근(根),지(枝) 등으로 되어 있다. 꽃은 부양(俯仰)<sup>19)</sup>이 번잡하지 않아야 하며, 가지 역시 뻗어나는 것이 난잡하지 않아야 한다. 잎은 엄양(掩仰)<sup>20)</sup>이 난잡하지 않아야 하며, 체 역시 서있는 것이 불안하거나 난잡해서는 안 된다. 뿌리는 반드시 서로 얽혀 있어야 하나 비례가 있어야 하고, 꽃과 꽃술은 피어 있는 것과 반쯤 핀 봉오리와 꽃망울이 서로 견해 있어야 한다. 또 국화(菊畵)는 고상하고 신비스러운 운치가 있어야 하고 약간 오만스런 자태가 있어야 한다. 색채는 꽃에 따라 다르고 향기도 꽃에 따라 다르며, 초류(草類)의 꽃이므로 매의 꽃보다는 아름다우며 꽃의 정취(情趣)<sup>21)</sup> 역시 다르다. 국화의 가지는 유연하여야 하며, 봄에 피는 꽃들보다는 매력과 절개가 있어야 한다. 잎은 무성해야 하고 윤기가 있어야 하며 다른 화훼화 보다는 고고(孤高)해야 한다. 그리고 꽃은 원정(圓整)<sup>22)</sup>하여야 하고 다른 화초보다는 상설 속의 묘미가 있어야 한다.

#### 4) 죽

대나무는 사군자중 겨울을 상징한다. 사시사철 잎이 지지 않는 까닭에 겨울에 푸름이 더 빛난다. 이 때문에 대나무는 매화, 소나무와 더불어 '세한삼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세한삼우(歲寒三友)'는 날씨가 추워졌을

---

19) 아래를 굽어보고 위를 우러러봄.

20) 등져 있거나 바라보는 것.

21) 깊은 정서를 자아내는 흥과 취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

22) 둥글고 가지런한 것.

때의 세 가지 벗이라는 뜻이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을 함께하는 친구란 뜻도 담겨져 있다. 선조들은 대나무 그림을 중요하게 여겼다. 곧게 자라는 강직함, 속이 비어있는 겸허함,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화원(畫員)을 뽑는 시험에서도 사군자중 유일하게 대나무 그림이 포함되었다.

죽은 본래 깨끗한 절개를 가진 식물로서 부녀자가 정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적 지조까지도 포함하며, 한국과 중국 역사에서도 이런 정신적 지조를 갖춘 사상체계를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묵죽화는 대나무의 속성인 강인함, 겸허함, 외로움, 청초함 등으로 인하여 사군자화 가운데서 가장 많이 그려진다.

대나무 구조는 줄기, 마디, 잎으로 되어있으며 이것을 필묵의 거칠고, 가늘고, 짙고, 옅음을 이용하여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묵죽화의 기법이 변화, 발전해 왔다.<sup>23)</sup>

화법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위치 즉 구도에 있어서 배치를 말한다. 죽화는 먼저 죽간을 그리는데, 간은 경(莖)이라고도 하며, 죽간을 세울 때는 반드시 죽절에서 먼저 머무르고 제일 아래 마디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약간씩 길어져야 한다. 마디는 대계 오절(五節)이 가장 많으며 구도상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

23) 허영환, 동양미의 탐구, 학고재, p193

## 2. 사군자 패턴을 응용한 본인 작품분석

### 1) 작품제작 의도

자연을 중시하는 자연주의 경향은 조형예술에 있어서도 중요한 테마로 부상하고 있다. 선조들의 고고한 정신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자연물인 사군자는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연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자연 속에서 더 나아가 사군자라는 다양한 형태 속에서 무한한 창작 아이디어를 얻어 이상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매, 난, 국, 죽의 시리즈로 진행된 바디페인팅 작품은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다. 사군자는 일반적으로 먹과 종이의 예술로만 인식되어 있어서 단순하고 정적인 그림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붓의 힘과 먹의 농담에 따라 매, 난, 국, 죽이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사군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매화는 흰색 꽃이 피는 것을 흰 매화, 붉은 꽃이 피는 꽃을 홍매화라 하고, 꽃잎은 4개, 5개, 6개로 구분되었으며 보통은 5개의 꽃잎을 가장 많이 그려왔다. 또한 난은 생생한 기운과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줄기의 먹 선으로 인한 부드럽고 깔끔한 분위기가 그 특징이며, 국화는 꽃의 크기가 크고 풍성한 것과 자갈한 소국 그림으로 나뉘고, 대나무는 화폭 전체에서 풍겨져 나오는 청아함과 푸름을 느낄 수 있다.

매, 난, 국, 죽의 형태에서 보여주는 조형적 요소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몸의 근육과 결합되었을 때 자연의 이미지로 승화되어, 보다 성숙된 바디페인팅으로 재창조될 수 있게 되었다.

동양만이 가지고 있는 사군자를 응용한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사군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성과 형태적인 명료함

을 작품에 표현하였다. 사군자의 이미지를 패턴화하기 위해 사군자의 개념을 파악하고, 매, 난, 국, 죽 각 대상의 특징을 살려 수묵느낌을 중심으로 표현하였으며, 여백의미를 강조하였다.

사군자 디자인의 컨셉(concept) 방향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며, 동양문화의 미적가치는 물론 인격수양의 매체로써 정신적 가치의 근간인 사군자를 응용하여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사군자의 전통성과 바디페인팅의 현대성이 조화된 작품을 통해 동양의 전통미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 2) 작품설명

### (1) 작품 1

梅1/

80x60cm/

Aqua Color, Mixed media/

2009

사군자화는 먹의 농담과 먹이 종이에 스며드는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 둥글고 긴 사군자용 한국화 붓을 사용하였고, 종이에서처럼 몸에 스며들지 않는 먹 대신해서 바디페인팅용 아쿠아 칼라 검정색상을 이용하여 먹의 느낌을 주려고 농묵, 중묵, 담묵을 살려서 표현하였다.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구성된 매화를 통해 청초하고 순결한 이미지의 단아함과 그에 반하는 섹슈얼한 느낌의 양면성을 모두 보여주기 위해, 매화 그림을 단순화하여 여백의 미를 많이 살렸으며, 여성의 등의 굴곡을 타고 내려온 매화가지에 홍매화를 강조하여 여성의 섹슈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매화의 붉은 꽃잎은 아쿠아 칼라 위에 메이크업 재료인 아이섀도우 붉은 색을, 손가락을 이용하여 덧발라 번짐 효과를 주어 섹슈얼한 느낌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림 26> 작품 1

梅 I /80x60cm/Aqua Color, Mixed media/2009

(2) 작품 2

梅2/

80x60cm/

Aqua Color, Mixed media/

2009

형태의 간결함 뿐 아니라 화면 조형에 있어서도 다양한 여백을 통해 단아함을 느낄 수 있다. 전체적 화면에서 여성의 뒷모습이 도자기 모양을 연상하듯 팔을 안쪽으로 접어 넣어 목에서 어깨까지 연결되는 부분과 어깨에서 허리, 골반으로 이어지는 잘록한 부분을 살리는 포즈를 잡아 화면 조형에 있어 단아함을 강조 하였다. 작품의 전체적 구도에서 머리와 골반의 가운데 중심에 해당하는 견갑골 부분에 매화그림을 배치하여 그려 나머지 부분의 여백을 살려 안정감을 주었다.

작품 2에서는 단아한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헤어스타일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연출하였고, 매화꽃의 붉은 색이 여성의 우윳빛 피부색과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모델의 피부색이 우유 빛깔처럼 더 투명해 보이도록 피부 결을 정돈하여 파운데이션으로 피부에 밀 작업을 하였다.



<그림 27> 작품 2

梅Ⅱ/80x60cm/Aqua Color, Mixed media/2009

(3) 작품 3

蘭/

150x100x4EA/

Aqua Color/

2009

난은 먹의 농담에 따라 줄기가 힘 있게 보이기도 하며 우아하게 보이기도 한다. 화려하진 않지만 고상한 꽃까지 더하여 사군자 중 가장 사랑 받는 소재였다.

작품 3은 먹의 농담을 살려 난의 회화적 특징이 잘 살 수 있도록 간결한 선을 사용하여 남성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가슴과 등의 근육이 많은 부분에 난을 쳤고, 난을 더욱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현대적인 춤의 대표격인 비보잉(B-Boying)의 프리즈(Freeze ; 멈추어 그대로 유지하다.)동작을 취하도록 하여 연속 촬영하였다. 몸의 움직임에 따라 난의 형태가 변형되도록 하여 리듬감을 강조 하였고, 난화가 근육의 움직임과 어우러지도록 근육의 흐름에 따라 아름다운 곡선의 난을 쳐서 근육과 난이 동떨어지지 않게 표현하였다. 또한 동작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난의 잎과 꽃대의 크기와 위치, 방향을 통해 같은 모델, 같은 그림이지만 다른 작품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



<그림 28, 29, 30, 31> 작품 3

蘭/150x100x4EA/Aqua Color/2009

(4) 작품 4

菊1/

Total 200x150/

Aqua Color/

2009

국화는 가을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늦가을의 찬 서리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인내와 지조를 꽃피운다. 작품 4는 국화의 강인한 이미지를 살려 국화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반복적인 꽃잎들의 농담을 잘 살려 표현하였다. 몸 전체에 국화 꽃잎 색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 노란색을 바탕색으로 칠해주어 넘치는 에너지와 훨씬 적극적인 역동성을 표현하였고, 국화를 반복적으로 몸에 그려 넣고 부분 부분을 나눠 화면 구성을 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국화의 신비스런 생명력, 국화 꽃잎의 풍성함을 조형적 요소로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여러 가지 화면 구성의 변화에 따라 꽃과 줄기, 잎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했다.

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을 주지만, 그 내면에는 그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살아가고자 함은 인간이나 식물이거나 더 보잘 것 없는 미생물에게도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작품 4를 통해 국화의 아름다움, 더불어 뻗어가고자 하는 생명력을 표현하였다.



<그림 32> 작품 4

菊 I / Total 200x150/Aqua Color/2009

(5) 작품 5

菊2/

80x60cm/

Aqua Color/

2009

작품 5에서는 국화꽃이 너무 크거나 풍성하지 않게 얼굴 골격에 맞춰서 안면 근육과 어우러지도록 작은 국화 두 송이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방향으로 배치하였다. 먹의 농담을 주어 잎을 표현하여 농묵과 담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모델의 포즈와 얼굴 표정을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외로이 절개를 지키는 국화가 느껴지도록 연출하였고, 얼굴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국화그림과 어우러지도록 표현하였다.



<그림 33> 작품 5

菊Ⅱ/80x60cm/Aqua Color/2009

(6) 작품 6

竹 I /

80X60cmX2EA/

Aqua Color/

2009

난초의 아름다움이 곡선에 있다면 대나무는 곧게 뻗은 줄기의 직선미에 있다. <그림 34>에서는 대나무의 직선미를 살려 중심이 되는 줄기를 배꼽 아랫 부분부터 목 부분까지 곧게 연결하였다. 작품 1~5와 달리 수묵느낌만이 아닌 디자인적인 문양을 넣어 타투 느낌이 나도록 연출하였는데, 연속성 있는 문양으로 연결감 있게 대나무 줄기를 표현하였다. 중심이 되는 줄기를 제외한 가지와 잎, 뒤 줄기는 작품 1~5처럼 수묵의 느낌을 살려 농묵, 중묵, 담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전통미와 현대적인 미의 조화를 의도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그림 35>에서는 <그림 34>와 대조된 느낌을 주기위해 줄기부분을 수묵느낌이 나도록 축필로 그렸고, 줄기와 잎 부분에 디자인적인 문양을 넣어 현대적으로 연출하였다.



<그림 34, 35> 작품 6

竹 I /80X60cmX2EA/Aqua Color/2009

(7) 작품 7

竹Ⅱ/

80x60cm/

Aqua Color/

2009

대나무는 곧게 뻗은 가지와 촘촘한 잎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푸름의 상징이다. 먹 느낌을 강조하여 강인함과 깨끗함을 더하여 주었고, 대나무의 회화적 특징인 마디와 곧은 줄기를 강조하였다. 줄기의 생동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 줄기를 한번 적신 먹으로 끝까지 그려야 한다. 여러 줄기를 그릴 때는 원근을 생각하여 앞에 있는 줄기는 중간 먹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줄기는 흐린 먹으로 그려야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다.

몸에 그리는 대나무는 종이에서처럼 부드러운 붓놀림을 하기 힘들다. 몸의 근육과 골격에 방해를 받아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붓놀림이 될 수 있으므로, 근육과 골격을 이해하고, 많은 연습을 통하여 몸의 굴곡과 그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6> 작품 7

竹Ⅱ/80x60cm/Aqua Color/2009

(8) 작품 8

竹Ⅲ/

80x60cm/

Aqua Color, Mixed media/

2009

작품 8은 앞의 작품들과 달리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6의 디자인적인 문양처럼 반복되는 문양이긴 하나 문양에 색과 음영을 더하여 입체감 있는 문양을 응용하여 대나무 줄기를 표현하였다.

대나무 줄기의 문양은 흔히 ‘호피’ 문양이라 하는데 동양인의 피부색에서보다 흑인의 피부색에서 포인트 칼라인 흰색의 표현이 강조되므로 흑인모형을 선택하여 고동색과 흰색을 위주로 하여 회화적 표현의 대나무를 완성하였다. 대나무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흑인 모델의 얼굴과 몸에 페인팅 한 이 작품이야말로 사군자의 전통미와 흑인모델의 서구적인 느낌을 살린 바디페인팅의 현대성이 만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37> 작품 8

竹Ⅲ/80x60cm/Aqua Color, Mixed media/2009

## IV. 결 론

바디페인팅은 인체에 표현할 수 있는 조형예술로서 인류의 탄생과 함께 발생하여 발전하여 왔다. 현대의 바디아트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회화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바디페인팅은 다양한 주제로 여러 가지 기법을 시도할 수 있고, 독창적인 연출을 할 수 있어 다른 문화예술과의 접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예술성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장르로서 다양한 창작성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화와 통일감이 있어야만 주제와 작품이 돋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바디페인팅은 평면적인 회화와 달리 3차원적인 작업으로 입체적인 인체에 작업하기 때문에 인체의 형태와 구조, 근육의 움직임 등을 먼저 파악하고 이해해야 아름다움을 최대화할 수 있다. 바디페인팅은 어느 예술작품과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선과 면의 조합으로 인체에 표현하는 예술 분야임에도 아직까지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의 것을 찾아 계승발전 시키고자 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으로 민족의 고유성을 살리는 디자인과, 한국적인 모티브를 소재로 한 예술작품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며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소홀히 여겨왔던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다시 고찰해 보고, 그 가치를 재인식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우리 것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바디아트에서도 동양적 이미지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동양미의 대표적인 사군자 패턴을 응용한 바디페인팅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양문화의 미적가치는 물론 인격수양의 매체로서 정신적 가치를 집약하고 있는 사군자를 응용하여 굴곡이 있는 인체에 표현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전통성과 현대성이 조화된 동양 전통미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먼저 바디아트와 바디페인팅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양 문화권에 오래도록 자리 잡은 사군자의 조형적 특성을 정리하여, 사군자 패턴을 응용한 새로운 형식의 본인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본인의 작품을 통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디페인팅은 인류가 태동한 시기와 역사를 같이하여 오래된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고 장식하고 표시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페인팅을 하였고, 한 시대의 생활양식의 표현과 정으로서 변화하였다.

둘째, 바디페인팅 영역은 단순히 몸에 그리는 개념에서 점차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 감에 따라 작가의 창조적 자아를 표출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인간의 모든 예술의 모체인 자연이 무한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동시에 작가에게는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자연의 선은 다양하고 무한한 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조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매, 난, 국, 죽의 형태에서 보여주는 조형적 요소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몸의 근육과 결합하여 보다 성숙된 바디페인팅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작품들은 동양에만 있는 사군자를 응용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바디페인팅 속에서 한국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

사군자를 응용한 본 연구 결과가 일시적인 작품제작에 그치지 않고, 더 확대되고 깊이 있게 발전되어 동양적인 미가 현대 예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동양적인 미 뿐 아니라 다양한 작품을 통해 바디페인팅의 예술성이 인정받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1999
- 김순철, 타투 & 바디페인팅, (주)라사라패션월드, 2005
- 김영숙 외 5인, ART MAKE UP, 도서출판 예림, 2006
- 박보영 외 2인, MAKE UP ART, 청구문화사, 2002
- 신단주 외 3인, 바디아트와 캐릭터메이크업, 크라운출판사, 2007
- 오세희, Style Make-up, 성안당, 2005
- 유수종, 사군자, 예서원, 1998
- 임미애 외 2인, 화장문화사, 신정, 2009
- 진현용 외 1인, The Body Art, 도도컴, 2002
- 최열, 사군자감상법, 대원사, 2000
- 최필선, 사군자 기법, 우람, 1995
- 한명숙 외 2인, The Body Art, 청구문화사, 2006
- 한명숙, 마꾸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1999
- 허영환, 동양미의 탐구, 학고재, 1999
- 허유, 사군자의 세계, 재원, 1994

### 논문

- 김경숙. 신체미술에 나타난 분장(Make-Up)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과학대학원, 2004

- 김재희, 바디페인팅에 나타난 기호성과 상징성에 대한 연구, 한성대 대학원, 2002
- 설현진, Body painting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조형대학원, 2004
- 이현주, 피카소의 회화를 응용한 바디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2003
- 천현노, 바디아트(Body Art)에 나타난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 연구, 전남대 대학원, 2006
- 한명숙,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 대학원, 2005
- 황지호, 19세기 상징주의 회화를 응용한 Body Painting 연구, 성신여대 아트·디자인대학원, 2008

# ABSTRACT

## A Study on Sagunja-mun Applied Body Painting.

- Centering around my own works. -

**Bae, Ki Hea**

**Major in Make-up & stylist**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Sagunja(four gracious plants), which holds the central idea and meaning of the Orient as the primary theme of the painting in the literary artist's style, has been widely treated as the medium enabling us to cultivate our minds and fertilize our lives. Moreover, it has been spreaded not only as a drawing but also as an intrinsic merit intensified emblem of the culture and spirit native to the Orient.

Sagunja are four plants, *plum-blossom*, *orchid*, *chrysanthe-mum*, *bamboo* all of which have lofty spirits and dignities. The *plum-blossom* is most noble flower on account of its blooming defying snows and biting winds, the *orchid* emits its fragrance far away in the deep mountain, the *chrysanthe-mum* stays in blossom until latest overcoming late autumn's cold and frost with an iron will and integrity, and the

*bamboo* is most highly appraised among those symbolizing honourable person's fidelity and women's chastity on account of its green and lively leaves even in the cold winter in when most other plants had become leafles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Sagunja are their beautiful lines and figures. They are expressed lines like half lines for the gorgeously beautiful *plum-blossom*, curved lines for the *orchid*, a suppleness of which merged into lines, half curved lines for *chrysanthe-mum* holding harmony of repeatability and simplicity, straight lines for the upright *bamboo*.

The nature is the source of every arts that it has been the subject of human interests, subject of formative creation for every artistic fields from old times, and human beings are enlarging its realm by creating a pure and unique formative beauties about the nature and diversifying materials and skills for the arts. Hereupon, my work of the body painting was expressed by making the Sagunja to be the subject to the nature and accentuating its rhythmical sense, which sets the Sagunja's formative properties in motion of flower forms following the human body movement.

Body painting is not just a thing to draw pictures on human body, but it's an art of creative expression of formative properties and artistic spheres by grafting the beauty and artistry of human body together. As it's the work to draw on solid body consist of curved lines and sides, skeletal structure unlike the drawing on flat canvas, it gives a feeling of

forms changing to a solid movement in general. It also is equated to the performing arts that showing instantaneous physical changes, and reborn as artistic dimension inducing performances to the themes with lightings and musics or stage properties.

As such, body painting is a creative physical overall art which gives shape to the image of harmonized arts and human beings using the materials and methods for visual presentations on human body.

In this study, a formative figure was deduced aided by natural lines by grasping formative traits and reinterpreting it with up-to-date ideas based on the beauties and intrinsic spirits of the Sagunja which is being forgotten today, and studied a new type of work in which a formative element seen in the figures of *plum-blossom*, *orchid*, *chrysanthe-mum*, *bamboo* is combined with body muscles.

It's noticeable that the Sagunja's unique aesthetic value could be created as a various artistic works due to how each theme is being accessed, chosen, interpreted.